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KBS광주 열린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2018 평창 패럴림픽 특집 평창에서 희망을 쏘다(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 (재) 40 생생정보 스페셜	00 파워매거진	00 예그루그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5 인간극장 스페셜	00 12MBC 뉴스 20 데릴남편 오작두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1	30 열린채널			55 닥터 365
2	00 팔도방송 30 2018 평창 문화 패럴림픽 개막축제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	1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재) 40 독?독!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재)	30 코딩TV	10 내친구 마카다 (재) 40 드림 주니어 베스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생생 3도!	00 뮤직뱅크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원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0 KBS 뉴스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랴다 55 지식 통조림
7	00 공사참립특집 내 아이를 부탁해 2부작 50 2018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50 인형의 집	10 전생애 원수들 5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평창 2018 패럴림픽 개회식
8		30 글로벌24 55 연애가 좋게		
9	00 KBS 뉴스 9 50 콘서트 7080			
10	50 KBS 뉴스라인	00 황금빛 내 인생 스페셜	00 MBC 뉴스데스크	00 정글의 법칙 1~2부
11	50 KBS 뉴스	00 건반 위의 하이애나	10 나 혼자 산다 1~2부	2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KBS 디렉터스컷 요리인류 - 서울의 맛 55 해외결작드라마 컬렉션 (재)	30 배틀 트립	40 삐그덕 히어로즈 스페셜	40 닥터 365 45 화첩기행

TV 10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2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50 광주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55 KBC모닝와이드
7	50 남북의 창	25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입니다	10 다이노 코어 25 꿈의 왕국 소피 루비 40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8	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10 전국시대	45 시사타치! 따따부따
9	30 KBS 뉴스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05 복면가왕 스페셜	35 고학전문록 스페셜 55 평창 2018 패럴림픽
10	30 노래가 좋아	10 영화가 좋다	45 라디오스타 스페셜	
11	30 영상앨범 산	25 해피투게더 (재)		10 전국 TOP 10 가요쇼
12	00 KBS 뉴스 10 동행	30 개그 콘서트(재)	00 MBC 뉴스 10 골벌의 죽음	15 SBS 뉴스 25 착한 마녀전 (재)
1	00 나눔의 행복, 기부 15 국악한마당 대보름 명인전	35 라디오 로맨스 (재)	00 천년의 전라도 25 데릴남편 오작두 (재)	
2	05 헬로카봇 5 40 뽀글스쿨 55 코리아인포그래픽 플러스	40 하룻밤만 재워줘 (재)		45 SBS 뉴스 35 키스 먼저 할까요? (재)
3	30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20 MBC 뉴스 30 쇼! 음악중심	
4	45 KBS 뉴스 55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50 황금빛 내 인생(재)	40 나 혼자 산다 1~2부 스페셜	55 미운 우리 새끼
5	30 동물의 왕국			
6	00 한국인의 밤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황금빛 내 인생 (재)	15 무한도전 1~2부	25 백년손님 1~2부
7	00 KBS 뉴스 10 다큐 공감		55 MBC 뉴스데스크	
8	0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35 김성민의 기막힌 이야기 45 데릴남편 오작두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55 착한 마녀전
9	00 KBS 뉴스 9 3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15 배틀 트립		
10	20 천상의 컬렉션	45 1%의 우정		
11	20 KBS 대기화 UHD 순례 4부작		15 MBC 가요베스트	15 그것이 알고 싶다
12	15 KBS 뉴스 25 KBS 스포츠 중계식	15 유희열의 스케치북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25 시사타치! 따따부따 (재)

TV 11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 10 팔도방송 40 101세의 프리포즈	5:55 생생정보 스페셜	10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민영방송 공동기획 뽀글 생명이야 4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7	1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재)	10 KBS 재난방송센터 20 영상앨범 산 50 1박 2일	00 MBC 뉴스 10 토론 갑론을박	10 자두와 친구들 40 열린공간 토크 Talk
8	00 KBS 뉴스 10 일요진단		00 시청자가 만드는 TV 25 우리가락 우리문화 40 아시아의 전통시장 스페셜	35 생활의 달인(재)
9	00 생방송 일요토론	20 1%의 우정 (재)	05 전지적 참견 시점 1~2부 스페셜	30 TV 동물농장
10	10 이웃집 할스 (재)	45 김성민의 영수증 시즌2	4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50 집사부일체(재)
11	00 TV쇼 진품명품			
12	00 KBS 뉴스 10 전국노래자랑	00 건반 위의 하이애나	00 MBC 뉴스 10 좌중우를 만국유람기	00 SBS 뉴스 10 SBS 인기가요
1	2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재)	25 추리의 여왕 시즌2 (재)	15 법상 차리는 남자 (재)	20 정글의 법칙(재)
2	20 공사참립특집 인간과 습지 2부작 (재)		30 데릴남편 오작두 (재)	20 SBS 뉴스 30 리턴(재)
3	15 다큐 공감	30 황금빛 내 인생 (재)	35 MBC 뉴스 45 색성 TV 연예통신	
4	05 시사기획 창	50 해피 선데이	50 복면가왕 1~2부	50 런닝맨 1~2부
5	00 KBS 뉴스 10 동물의 왕국			
6	00 열린음악회		45 오지의 마법사	25 집사부일체 1~2부
7	00 KBS 뉴스 10 도전, 골든벨	55 황금빛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8	10 글로벌 다큐멘터리-빅 캣		35 김경식의 기막힌 이야기 45 법상 차리는 남자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 9 30 역사저널 그날	15 개그 콘서트		05 미운 우리 새끼 1~2부
10	20 미래기획 2030	40 다큐멘터리 3일		
11	10 KBS 결작 다큐멘터리	40 김성민의 영수증 베스트(재)	15 스트레이트	05 SBS 스페셜
12	00 KBS 뉴스 15 KBS 바둑왕전	5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재)	05 MBC네트워크특선 UHD 55	05 평창 2018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한채아, 5월의 신부 된다

차범근 아들 세희와 결혼

배우 한채아(36·왼쪽)가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막내아들 차세희(32)와 오는 5월 결혼한다. 한채아의 소속사 미스틴엔터테인먼트는 8일 “한채아 씨가 소중한 만남을 이어온 차세희 씨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예식은 오는 5월,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하 속에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두 사람의 앞날에 많은 축복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더불어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을 펼칠 한채아 씨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채아는 2006년 뮤지비디오로 데뷔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에 출연했으며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차세희는 차범근 전 감독의 아들이자 축구코치 차두리와 변여가 차하나의 동생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음 1월 22일 庚子)

<p>子</p> <p>48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60년생 김홍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72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84년생 이미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니 입찰에 있어서 감당할 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6, 75</p>	<p>午</p> <p>42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54년생 숙명운이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66년생 정성을 한다면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78년생 즉시 배제하는 것이 옳다. 90년생 이 보 전진 위해 일 보 후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이다. 행운의 숫자 : 37, 32</p>
<p>丑</p> <p>49년생 기대해 왔던 바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 받아 본 성과가 대단히 불만족스럽겠다. 61년생 두 눈 모두 뜨고도 이용당할 수도 있다. 73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85년생 끝없이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3, 11</p>	<p>未</p> <p>43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55년생 배려하다보면 얻는 바가 많다. 67년생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이 보인다. 79년생 행해도 될 때이니라. 91년생 경험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00, 80</p>
<p>寅</p> <p>50년생 과격적인 양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62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74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86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13, 11</p>	<p>申</p> <p>44년생 상호간에 절대적으로 대화가 부족한 실정이나 허심탄회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56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68년생 복잡한 관계들이 보인다. 80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7, 15</p>
<p>卯</p> <p>51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간다. 63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5년생 앞으로 벌어질 정황은 별 것 아니니 놀랄 필요까지는 없다. 87년생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자. 행운의 숫자 : 54, 71</p>	<p>酉</p> <p>45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57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69년생 근본 원인부터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81년생 양호한 구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28, 99</p>
<p>辰</p> <p>52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취을 것이다. 64년생 이제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조용히 뒤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니라. 76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88년생 감정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6, 31</p>	<p>戌</p> <p>46년생 평소애 마음먹었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58년생 지금 착수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하리라. 70년생 과감하게 펼쳐본다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82년생 사전에 미리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6, 90</p>
<p>巳</p> <p>53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77년생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89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59</p>	<p>亥</p> <p>47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59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71년생 적기 아니니 집착을 버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83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 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자. 행운의 숫자 : 79, 29</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